

지민은 그간 쌓였던 욕구를 모두 게워내기라도 하듯
김용의 몸을 집요하게 탐했다.



그를 향한 맹렬한 증오심과 재구속 의지는
쾌락에 희석되어 증발한 지 오래였다.



모든 게 동생 때문에 벌어진 오해였다는 게 명확해졌으니,
더 이상 그에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없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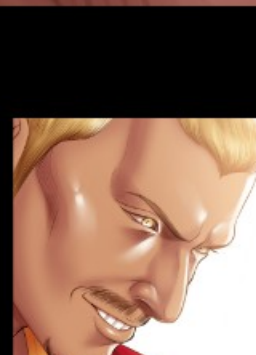
지민은 체력이 소진될 때까지 그의 몸을 탐닉하며
희열을 만끽했다.

섹스를 거듭할수록 그에 대한 알 수 없는 경외심이 피어올랐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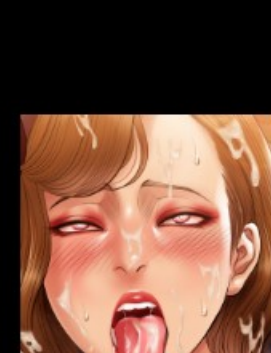
미림이 김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제거하고,
그와 오래 교류할수록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
과다분비 되도록 뇌를 재구성했기 때문이다.

어느새 지민은 저택에 들어왔을 때의 건방진 말투는
온데 간데 없이 자연스럽게 존칭을 사용하고 있었다.



몇 번을 먹어도 도무지 질리지 않는 보지군. ㅋㅋㅋ...

츤옵... 흐응♡...
가, 감사합니다아...♡



그날 이후, 지민의 몸은 진정이 되질 않았다.

하루에도 몇 번이고 그의 자지를 떠올리며 자위를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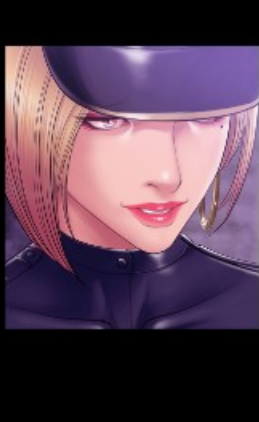
심지어 직장에서도.



욕정을 못 참고 화장실에서 몰래 자위하다 정아에게 들켰지만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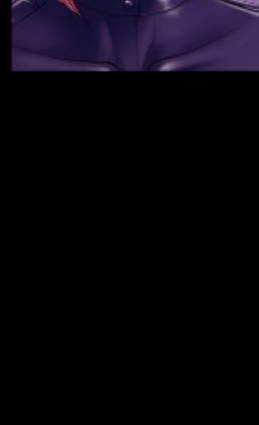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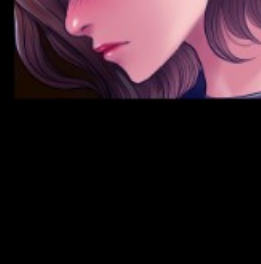
정아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괜찮다고 했다.



뭐 어때. 다른 여경들도 발정날 때마다 수시로 하는데 뭘.

나도 사무실에서 가끔 해.

그, 그런가요...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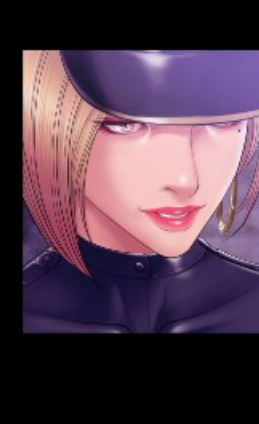
하지만 너무 자위만 하는 건 좋지 않아.

내가 뭐하러 비밀 공간을 만들었겠어?

욕정을 달래는데는 남자 만한 게 없어.

지민은 얼굴이 붉어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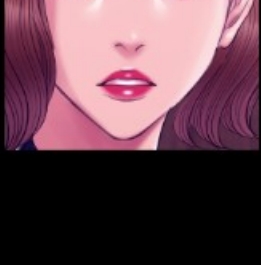
정아는 그런 지민이 귀엽다는 듯 그녀의 볼을 어루만졌다.



참, 오늘 저녁에 우리 서 직원들이랑

클럽 파티 갈 예정인데, 너도 올래?

클럽? 어디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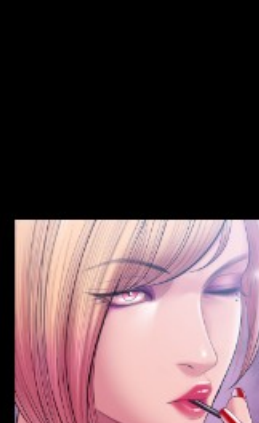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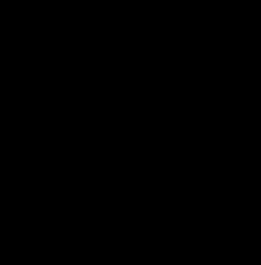


김용이 운영하는 매춘 클럽.

네가 소탕했던 곳 말이야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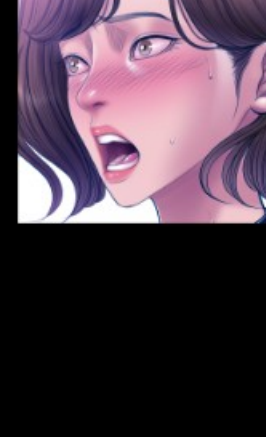
네에?? 그, 그게 무슨...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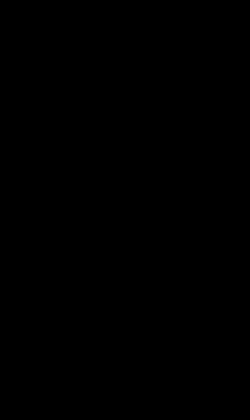
놀라긴. 너도 김용이랑 할 거 다 한 사이잖아?

왜 순진한 척이야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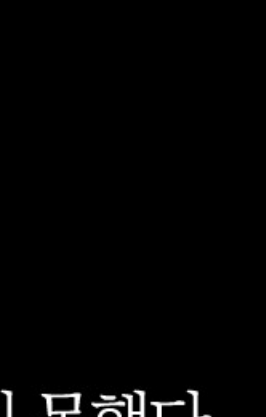
앗...! 그, 그걸 어떻게...



김용 카르텔은 이제 우리 서의 든든한 스폰서가 되었어. 네 자리에 놓여있던 사치품들도 거기서 준 거야. 우리 앞으로 그런 하찮은 장난감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사업에 함께 할 거고.



.....



카르텔과 결탁해 범죄수익을 도모하겠다는 말을 하는데도 지민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.

경찰로서의 사명이나 정의감보다는,

열락의 파티에 대한 기대감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..

흡연세뇌 2



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야?

!



아...

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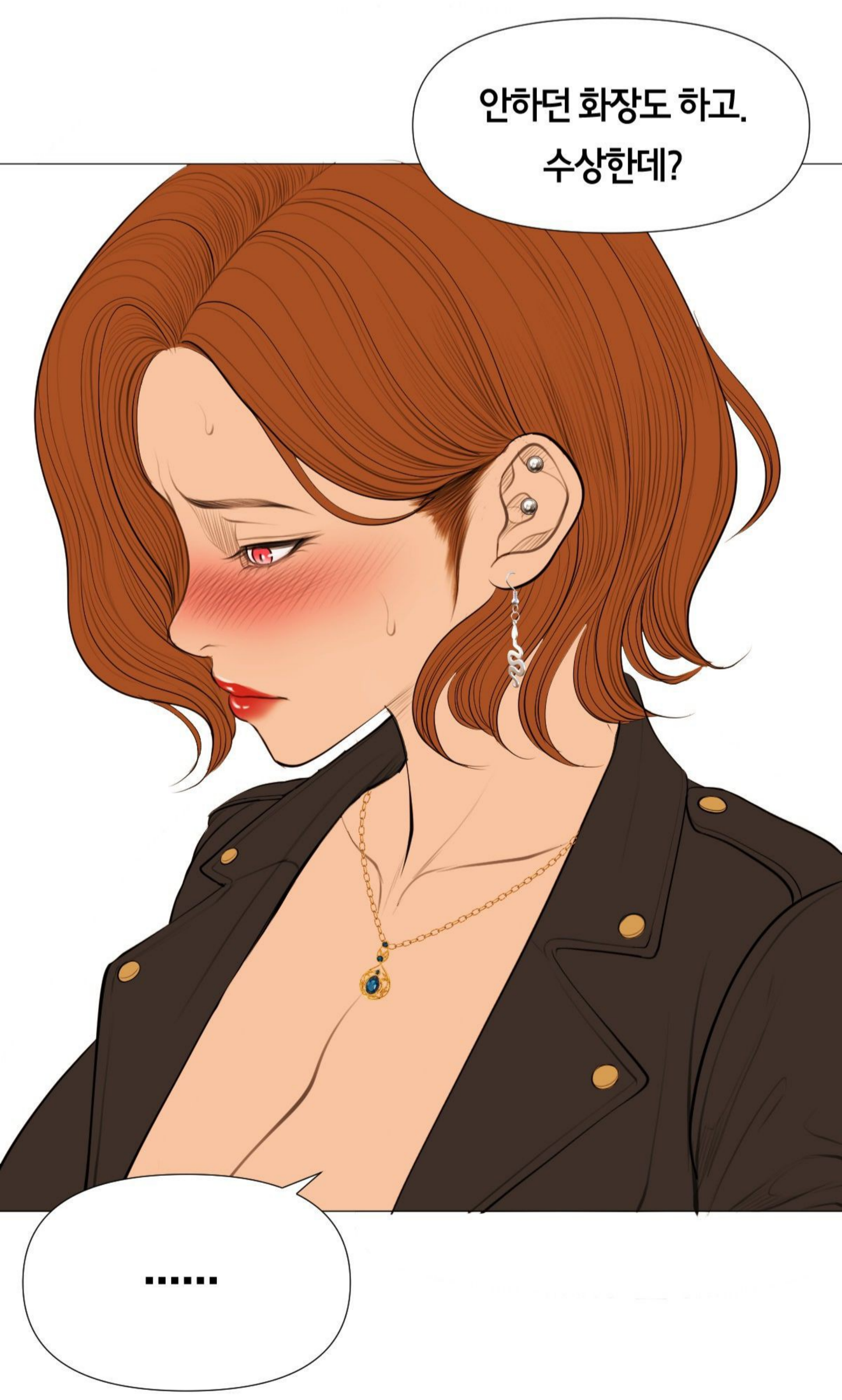
그게...
사장님이 긴급 호출해서...
서에 가봐야해.

.....



그런 차림으로?

...!



안하던 화장도 하고,
수상한데?

.....



설마 숨겨둔 남자친구라도 만나러 가는...



그런 말은 니가 무슨 상관인데!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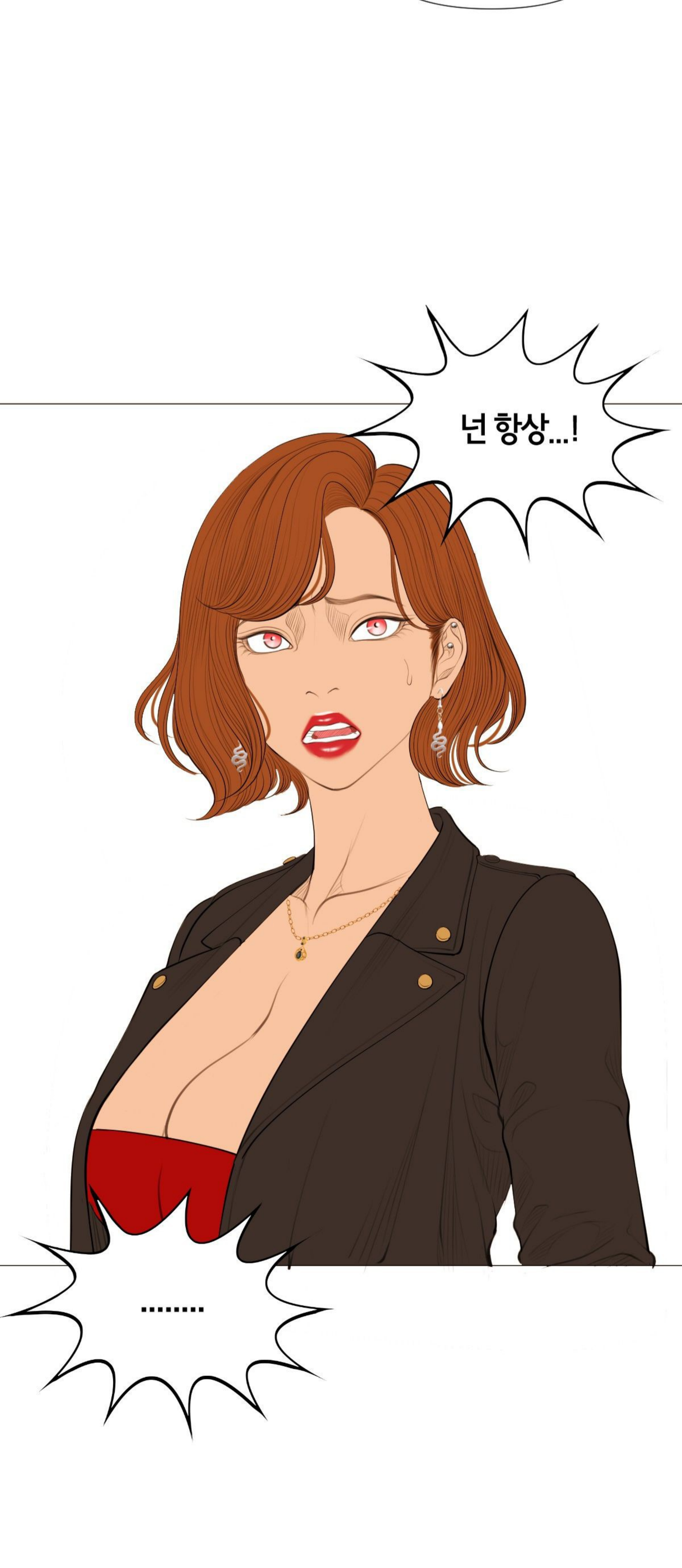


!!



... 왜 그래?

...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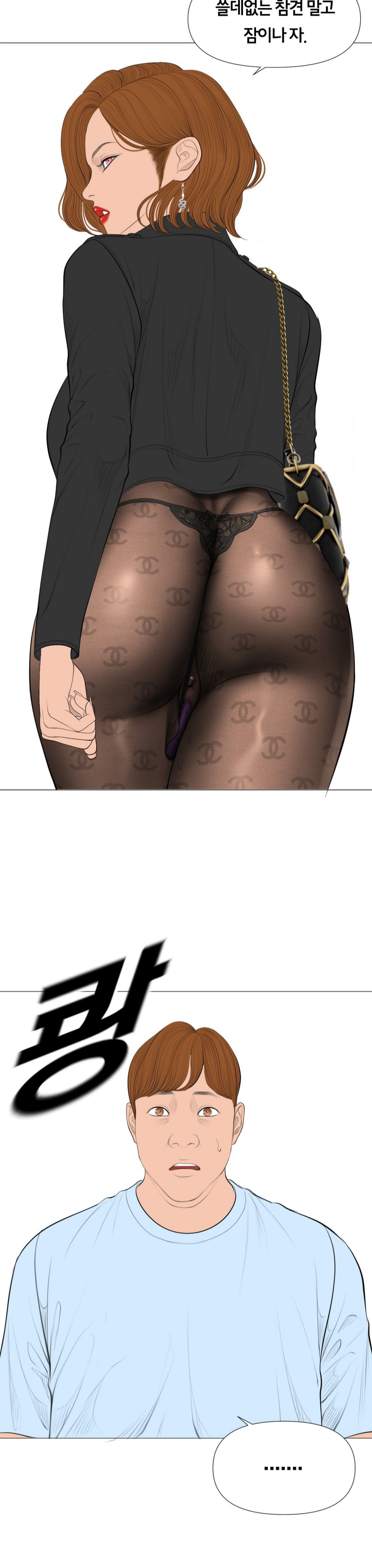
넌 항상...!

.....

..... 됐어.
그만하자.



쓸데없는 참견 말고
잠이나자.



퐁



.....

뭐야...



갑자기
왜 저러는 거야?